

짙은 태풍에 전남 해안 빠르게 사라진다

국토부 모니터링, 주요 백사장·사구 침식 심각

완도 명사십리·여수 만성리 등 28곳 전국 최다

짙은 태풍에 명사십리 해수욕장 등 전남지역 해안이 해마다 심각하게 깎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18일 공개한 '2012년도 국내 주요 백사장·사구 침식모니터링'에 따르면 전남지역 침식 우려 지역(C등급)은 2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우려 지역은 침식등급 중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전체 4단계의 침식 등급 중 우려 지역은 심각(D등급) 다음으로 침식이 진행된 곳을 뜻한다.

이 지역 침식 우려 등급은 ▲영광 송이도해수욕장·백바위해수욕장 ▲신안 대광해수욕장·남촌지구·읍동지구 ▲함평 월천지구 ▲무안 마산지구·용정지구·송현지구·성내지구 ▲목포 혼불지구·유달유원지 ▲해남군 월래1지구·금호지구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보성 울포해수욕장 ▲여수시 만성리해수욕장 등 28곳이었다.

전체 조사 지점 41곳 중 절반 이상에서 침식이 진행되고 지난 2010년 15곳, 2011년 23곳에 이어 해마다 침식 우려 지역이 늘고 있다.



다행히 전남 지역에는 D등급은 아직 없었지만 전국 C등급 102개 소 중 27%가량이 이 지역에 몰려 있어 언저라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안 침식이 심각한 상태다.

또 침식 속도도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B(보통)등급이었던 영광 송이도해수욕장, 대광해수욕장, 해남 금호지구, 여수 하화지구 등이 1년 만에 C등급으로 심화됐고, 지

난 2008년 A(양호)등급이었던 신안 대광해수욕장은 4년 만에 C등급이었다. 이는 지난해 5개의 태풍이 있따라 이 지역을 강타, 높은 파도에 연안 침식이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안 침식을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224억원 많은 516억원을 늘리고 침식심각지역에 대한 국가시행 정비사업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연안침식이 우려·진행 중인 연안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연안관리법을 개정·추진하고, 해당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호남눈물 닦아준다더니...”

강시장, 차당선인 '호남현대 인사' 실망

강운태 광주시장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사와 관련해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박 당선인의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공개 간담회에서 “장관 내정자 17명 중 광주·전남 출신은 단 1명 뿐”이라며 “인사 대량경과 호남중용론을 기대했던 지역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을 비롯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해왔다”며 “대통합의 첫걸음은 인사 대량경과 차관과 1급 인사비라든가 대량경과 정책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호남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감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경상도에 가면 안 도와줄수 없게 논리적인 광주·전남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면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현안 신규사업)이 있으면 정교한 논리로 무장해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앞으로 광주시민의 힘으로는 안되며 정치권, 시민사회, 출향인사 등 모든 세력의 역량을 총결집해 지역현안이 정부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 추경예산에 박 당선인의 광주공약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시장은 오는 26일부터 5개 자치구를 방문해 시민과 대화에 나선다. 강 시장은 26일 동구를 시작으로 27일 서구, 3월 4일 남구, 6일 북구, 7일 광산구를 각각 방문해 민선 5기 시정성과 시장방향을 설명하고, 시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강 시장은 또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등 민선 5기 시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준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준비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농정원을 나주혁신도시로” 전남도 건의

세종시 이전엔 농촌경제연구원 규모 축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시 급 천면·이하 혁신도시)로 옮겨오는 이전 기관이 있따라 규모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남도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돼 농정원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정

지역발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지역발전위는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나주 혁신도시의 최대 규모 이전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도 송·배전 부문과 판매부문을 분리해 경쟁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분할 이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전남 시군의장단협의회가 한국전력의 분할 계획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김치축제 10월5일~9일 열린다

올해 20회째 전시·체험 동시에- 경복궁 특별행사도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광주 세계김치문화축제 기간이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로 확정되고, 경복궁 특별행사도 열기로 했다.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위원회(위원장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는 18일 올해 첫 총회를 열고 제 20회 김치축제 기간과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세부전략을 마련했다.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시와 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김치오감체험관’과 김치 산업관, 김치명인 쇼케이스 등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역대 김치 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김치 명인식당’을 개설하고, ‘우리집 김장하기’ 등 대체로 온 참여 행사도 진행된다. 시는 또 20회를 기념해 ‘김치축제 고궁 나들이-수라간 김장하는 날’을 부제로 하고, 축제 한 달 전인 9월 7일 서울 경복궁 등에서 김치를 주제로 한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서울 특별행사는 지난 3월 유네스코에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신청한 ‘김치와 김장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오는 11월 유네스코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시는 또 9월 6일에는 서울에서 세계김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제5회 국제김치콘퍼런스’도 개최한다. 광주시 이규영 관광산업 담당은 “올해 행사는 축제 방문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20주년을 맞아 김치축제가 지향하는 김치의 세계화와 산업화의 기틀을 다지고, 명실공히 지역의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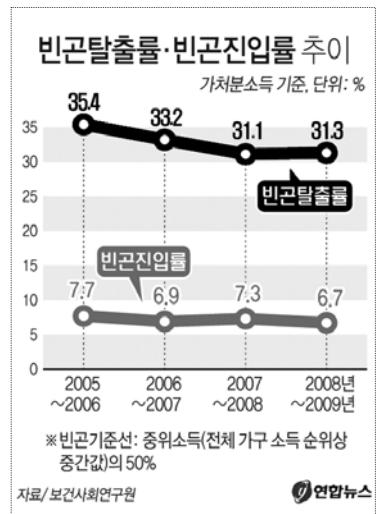
강운태시장, 시민과 소통 나서
오후 '시민과 대화'에서 민원이 제기된 북구 삼각동 세라아파트와 광산구 신창동 영산강대상공원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빈곤탈출' 갈수록 어려워진다

5년새 31%로 떨어져... 소득최하층 73% 제자리

우리 사회에서 소득 계층간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가정의 비율도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사회연구원원의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5637가구의 소득 추이를 추적·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05~2006년 35.4%였던 빈곤탈출률은 2006~2007년 33.2%를 거쳐 2008~2009년에는 31.3%까지 낮아졌다. 이번 연구에서 '빈곤'의 기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설정됐고, 빈곤탈출률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소득

이 빈곤선 이하였던 가구 가운데 해당 기간 빈곤선 위로 이동한 비율을 말한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에서 조세·사회보장부담 등을 뺀 것이다. 경상소득 기준 빈곤탈출률 역시 2005~2006년 32.6%에서 이후 해마다 낮아져 2008~2009년에는 28.8%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전까지 빈곤층이 아니었던 가구 가운데 새로 빈곤층에 편입된 비율을 뜻하는 빈곤진입률은 5년 동안 가처분소득 기준 6.7~7.7%, 경상소득 기준 6.5~7.3% 범위 안에서 해마다 등락을 거듭했다. 또 2005년 기준으로 가구들의 소득



을 1~5분위로 나눈 뒤 2009년 시점을 시 소득 분위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에 속했던 가정의 73.0%는 2009년에도 여전히 1분위에 머물러 있었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계층의 79.9%도 같은 기간 제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광주시 블로그 기자 모집
광주시는 18일 “공식블로그 ‘광주랑(www.savgj.com)’의 제4기 시민기자단을 다듬달 17일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월 2차례 이상 사진이나 동영상 콘텐츠 등 현장

전남도 경제부지사 후임 인선 촉각

전남도 정순남 경제부지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후임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 부지사가 오는 28일 퇴임하기로 하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올해 25~26일께 후임자를 결정할 계획이며, 정 부지사는 퇴임 후 목포대 교수로 근무할 예정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公認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 (16기)	광주교육대학교 (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3.8 (금) 09:10 (총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3.9 (토) 09:10 (총급반)	·월·목 야간반 2013.3.4 (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3.7 (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3.9 (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1.24.(목) ~ 3.9.(토)	2013.1.24.(목) ~ 3.9.(토)
수업기간	2013.3.8.(금) ~ 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3.4.(월) ~ 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KTFC (사) 한국맛음식연구원
Sthe1 요리학원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김치자격증반 · 대회반
각 선착순 10명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강사진

- 푸드코디네이터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 백석문화대학교 이진하 교수 (경기대학교 식공간 연출 석·박사)

김치 자격증반 · 대회반 강사진

- 김치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 한국 음식 대가 구본길 부회장 (고려전문학교)
- 한국 관광 대학 호텔조리과 김옥란 교수 (경기대학교 외식조리 석·박사)
- 현) 신라호텔 한식과장 백영란 교수

한식조리기능사 게재제 실시 (수시개강)

Sthe1 요리학원 문의 전화 062)385-0723
금호파출소 건너편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1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기초야간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 2012. 3. 4(월) ~ 2013. 6.17(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주간반: 30명
기초반 야간반: 30명
- 수업시간 : 매 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17:00
- 야간반 18:00~21:00
- 수료 후 특전
· 기초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인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530-3873-3876
-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

운명철학

人間的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접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병들은 정녕 노력을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를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속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재미두수 대가!

경천동학 비술(천문 지미두수) 수심법을 모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해 하게 안내할, 예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우승인, 예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광역시 서구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공명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